

먼저 베풀고 나눠주는 가슴 따뜻한 사나이

제42호 자랑스런 안전인 삼익LMS(주) 도주환 부장

비가 내린 후에는 온 세상이 싱그럽다. 파이란 하늘도 그렇고 촉촉이 물방울을 머금은 꽃과 나무도 그렇다. 여름철 무섭게 쏟아지는 장맛비도 가을의 추수를 위한 영양소를 공급하듯, 우리의 일터에 안전의 단비를, 안전의 영양소를 머금게 해 준 이가 있어 만나 보았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에 위치한 삼익LMS(주)는 1960년 5월 창업 이래 각종 산업용 줄로 시작하여, 1984년에는 일본 THK사와 손을 잡는 등 꾸준한 연구개발로 오늘날 국내 제일의 LM SYSTEM 메이커로 발돋움한 곳이다.

이런 삼익LMS(주)에 1979년에 입사하여 지금까지 27년간 안전·보건·환경 업무를 맡아온 도주환 부장은 안전이야말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쟁력을 길러주는 기폭제라고 얘기한다.

안전이야말로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경쟁력을 길러주는
기폭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안전관리를 함에 있어 힘든 것이 현실이다. 사고예방은 하려하지 않으면서 사고 발생 후에만 안전불감증이니, 안전관리미흡이니 하며 다들 분주하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다. 회사의 손실이나 명예훼손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파멸의 길에 빠지게 된다. 이에 도주환 부장은 무엇보다 철저한 점검·관리와 원칙준수를 강조한다. 안전관리자는 물론 작업자, 관리감독자 모두가 점검하고 확인하여 미연의 사고를 대비하고, 이러한 수시 점검을 통해 근로자 스스로 위험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자율안전의 기틀


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체험이야말로 가장 큰 스승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여 일하면서의 문제점이나 아차사고사례 등에 초점을 맞춰 체험위주의 교육을 실시한다.

대외적으로도 안전분야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한국산업안전공단, 환경분야에서는 환경기술인연합회, 맑고푸른대구21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는 안전·보건·환경의 최고 전문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한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근로자를 대하고 업무에 임하는 그는 그래서 더욱 인정받는 안전인 인지도 모른다.

지난 제38회 산재예방유공 대통령표창을 받은 그는 그 상이 삼익LMS 식구들은 물론 주위 모든 이들의 도움으로 받은 모두의 상이라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일터에서 편안히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하늘을 닮아 겸손하고 바다를 닮아 넓고 관대한 그의 모습이 우리네 현장에 널리 퍼져 안전한 한국, 사고없는 무재해 한국으로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성호연 기자〉